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문화일반

작지만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일에 응원을 부탁하며

culture | art

기존의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것이 당대적인 문화예술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여 삶의 근거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가능성, 문화와 예술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내는 실천들이 존재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일반
- 하자센터 부소장 (97-03)
- 문화예술교육허브사이트기획운영단장 (04)
- 연세대 청년문화원 연구원 (99-현재)
-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사회문화분과) (04-현재)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04-현재)

배우면서 치열하게

뜻하지 않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마음이 영 가볍지 않다. 주변에서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기존의 관행과 새로운 혁신과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미래설계 사이에 메워야 할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일까? 몇 번의 짧은 회의를 거치면서 나는 위원회가 감당해나가야 할 과제와 쟁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허용된 3년 간의 시간 동안 많이 배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있다. 특히 나보다 앞선 세대의 경험을 배우고, 지금까지 논의의 장에 초대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술위원회에 부과되는 당대적 과제에서 우회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배우면서 치열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얼마 전 한 후배의 홈페이지에서 “역사 앞에서 가장 줄렬한 것은 편들지 않으려는 자들의 중립적인 공정성의 환상일 것이다”라는 글을 읽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형성해 온 역사의 장에서 비켜서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껏 현재를 구성해 온 운동과 주체를 지우는 ‘폭력’ 일 수도 있음을 가슴 아프게 되새기고 있다. 지금 존재하는 갈등의 소재와 분열의 쟁점들을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과 분열의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과 발언을 허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또 문화와 예술의 현장에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매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새로운 미학에 대한 요구가 성장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실천이 형성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 현장에서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 질서와 불화한다. 다양한 평면에서 전개되는 불화의 내용들을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배제하기보다

는 생성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는 좀 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문화예술 후속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어진 노력을 다해보려고 한다.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워가면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현실을 가로지르는 분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나갈 주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문제해결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내가 예술위원회의 1기 위원들에 대해 보내는 신뢰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흐름에 반응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실천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파괴되어버린 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경제적 격차와 세대 차이를 매개로 분할되어 버린 재생산의 조건들을 재구성하는 공공적인 문화적 실천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 문화,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접근권 등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심사와 이어져 있다. 삶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문화적 실천에 문화와 예술의 역능이 충분히 기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교육과 문화환경의 문제는 문화와 예술의 존재의의를 재정의 하고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의 삶으로 투입되는 실천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창작과 향수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창작의 영역을 재발견하고, 문화와 예술이 자기발견과 자기치유의 역할을 수행해가며, 삶의 관계를 재 복원하는 능동적인 실천의 영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동시대를 같이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도모해보려고 한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가면서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화예술의 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대의 동료들에게 드리는 부탁

기존의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것이 당대적인 문화예술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여 삶의 근거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가능성, 문화와 예술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내는 문화와 예술의 실천들이 존재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현실의 움직임에 제대로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는 일에 전념을 다할 것이다.

비록 경험은 적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한편으론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위원회의 과오를 넓게 이해하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숙하고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rts Council KOREA